Analyst: Yuanta Research (중국)
+86 21 6187 3832 / research@yuanta.com
번역: Yuanta Research (한국)

전국 양회 15차 5개년 계획의 방향성 제시, 미-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세계 시장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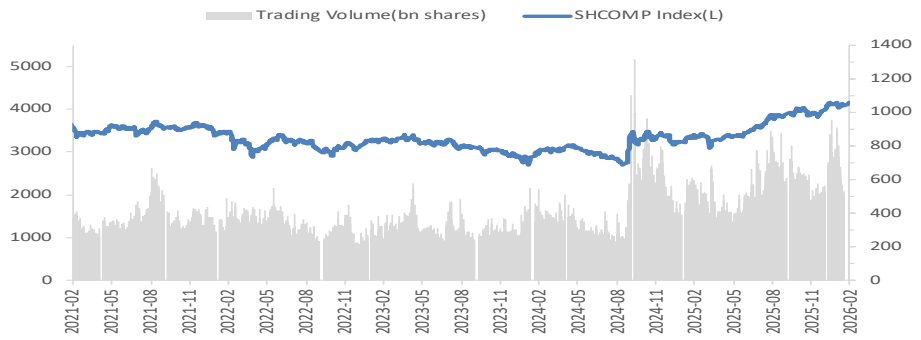
춘절연휴 이후 A 주 시장은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마감했으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고 경기 민감 자원주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전국 양회 개최가 임박하면서 시장은 정책 기대와 가격 상승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급격히 확대됐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유가와 금 가격은 급등했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한 반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이 분쟁 규모를 통제할 가능성은 있으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 내 정책 모멘텀 강화: 중국 중앙은행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 선물환 매도에 대한 외환위험준비금 비율을 20%에서 0%로 인하했다. 양회 개최와 함께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치가 4.5~5%에 설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신질 생산력, 산업 업그레이드, 탄소배출 감축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수요 진작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도입했으며, 지방정부 업무보고에 'AI'가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됨에 따라 저고도 경제와 AI+ 이니셔티브가 여러 정부 부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단기간 A 주 시장은 지정학적 불안과 양회에서 발표될 우호적 정책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1) 지정학적 갈등, 수급 모멘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석유 및 가스, 해운, 비철금속 섹터, 2) AI 호황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메모리 및 유리섬유 섹터, 3) 저고도 경제와 체화 인공지능(embodied AI) 등 정책이 뒷받침하는 미래 산업 등 세 가지 부문에 주목할 것이 권고된다.

주: 발간일 2026.03.05

중국 시황

상해종합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Yuanta Investment Consulting